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에게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마음의 눈을 떠야 마음의 진가를 맛볼 수 있어!

밖으로 향하는 이 마음의 정체

문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의 틀을 벗어나서 마음으로 자유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육심인지 항상 내 근본으로 몰입해서 들어가려고 해도 주위에서 이것이 좋다 이것이 빠르다고 하면 거기에 혹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안으로 몰입하지 못하고 자주 밖으로 향하는 이 마음의 정체는 무엇인지요. 나라는 틀을 벗어나 자유인이 되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 여러분이 자주 바깥에서 찾는 그러한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그림 비유해서 한번 말씀드리죠. 출창 내가 얘기하지만 작년 콩씨를 올해 심어서 콩씨가 낫습니다. 콩씨가 자라서 콩이 열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콩나무는 자기 콩나무에서 콩씨가 열린 것은 생각 안 하고 작년 심은 그 콩씨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 이진을 찾으니까 그만 바깥에서, 작년에 밭에 심었던 그 콩씨를 찾는다고 해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코를 꽂고 막고선 냄새를 맡으려고 해 보십시오. 냄새가 맡아지나. 혀를 꿰고서 맛을 하려고 해 보십시오. 맛이 되나. 우리는 마음의 눈을 떠야 마음의 진가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의 진가를 맛보았어도 맛본 그것을 또 안으로 굴러서 체험을 하면서 자꾸자꾸 지혜를 넓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으면 깨달았다는 말 할 필요가 없이 안으로 굴러서 또 지혜를 넓히고... 지혜를 넓혀서 또 온 바다를 만드는 거와 같이 내 마음이 온 누리 어느 곳에 닿지 않는 데가 없이 됐을 때, 여러분과 나와 둘이 아니게끔 됐을 때에 일체 만물, 무정물이나 모든 생물, 물에 있는 고기와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저런 풀잎하고도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산에 올라갔을 때는 그 풀잎들이 다 말을 해 주고 '이것은 당신의 약이 되는 거'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꼭 먹을 걸 썰어놓아야만 산에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난 그거와는 다릅니다. 내가 먹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왔다면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형성시켰을 때는 자기가 자기를 굶겨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 있듯이 말입니다. 산에 올라갔어도 맨 몸뚱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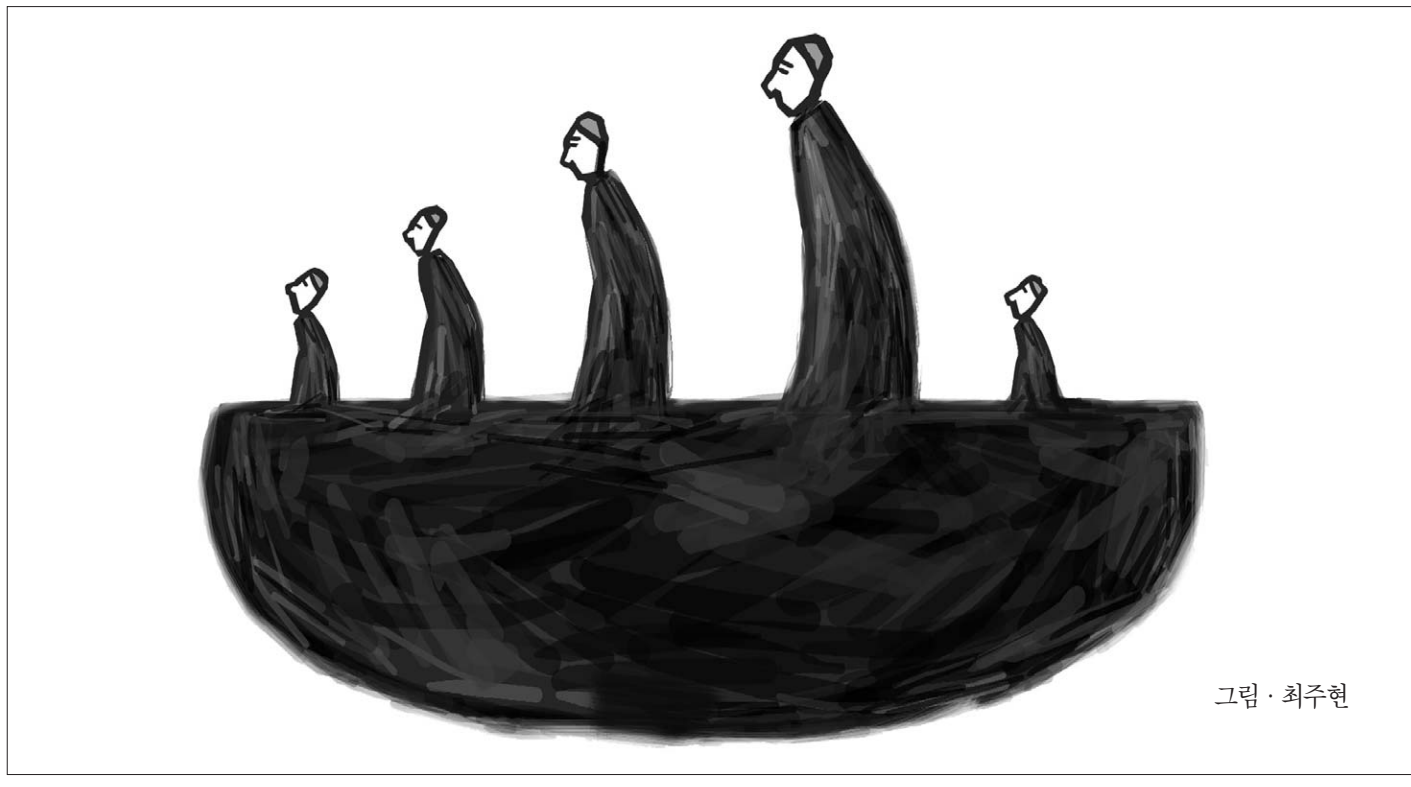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렇게 올라갔다면 '허허, 이거는 먹을 공리를 안 하고 올라왔으니 먹여 줘야지.' 그래서 그 풀잎과 풀잎이 다 같이 동일하게 되니까 먹을 것을 스스로 찾다가 주터라 이겁니다. 내가 움직여서는 대로 먹을 게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생식을 한다고 쌀을 물에다 불려 가지고 한 주발씩 먹는 것도 봤습니다. 차라리 밥을 해 먹지 못 때문에 물에다 담갔다 한 주발씩 먹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보통 여러분과 같이 그냥 먹는 게 낫겠죠. 코가 간지러울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진실한 마음은 하늘에서 알고 땅에서 알고 법계에서 안다는 얘깁니다. 거짓이 한 치라도 있다면 그건 웅남되지 않습니다. 거짓이 한 치라도 있다면 바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그 속임을 받는 것도 자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열쇠를 내주지 않습니다. 바로 주인 공이라는 이름 아닌 주인공이 하늘, 우주 전체를 싸고 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를 못 보시길랑 현실을 보십시오. 빛을 얻어서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익이 남아

서 들어올 줄만 알았지 빚져서 이자와 더불어 같이 나가는 거는 생각이 못하고, 그러다가 그것때 그만 잃어버려서 방진을 하는 수도 많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하게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고 자기 마음을 정도에 넘치지 않도록, 분수를 알맞게 지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두들겨 가면서 걷는다면 아마 천둥 벼락이 내리도록 품짜도 안 하고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런 공부를 하면 보통 생활에서 어려움이나 좀 없애고 그냥 살겠지.' 그러지만 이 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내가 주장자를 세우지 못하고 그걸 발견을 못하고 이래 가지고서는 세균, 영계, 윤회, 생사, 유행, 업보에 꼬달리면서 살아나가기나 그 고달픈은 말도 못합니다. 거기에서 나 하나만 몰락 벗어나는 거 의의 것은 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본래 나는 공(空)해서, 본래 벗어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지어 속는 것이고 그게 업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되풀이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침착하게 잘 생각해서 누가 모든 걸 막아주고 누가 흥

하게 했고 누가 웃게 했고 누가 울게 했고 누가 그렇게 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못하고서는 공덕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든 없든 진심으로 내성의 시주를 하고 정성을 들이면서, 과거의 빚을 갚으면서 미래의 덕을 쌓으면서 우리는 현실의 공부를 하자 이겁니다. 현실의 공부를 해서 영원한 오늘을 안다면 영원한 오늘도 벗어날 것입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진리가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도 바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경지까지가 어려운가 하면 어렵지도 않고, 어렵지 않은가 하면 어렵기도 합니까? 이것이 가다 보면 다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려고 생각하는데 왜 안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숨이 끊어진다면서...

문 스님, 지금 당장 숨이 끊어진다면서 어떻게 되나요? 그냥 무료 돌아가나요, 아니면 또다시 윤회를 하게 되나요? 그리고 가족의 인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이가 안 좋은 가족과 다음 생애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속에, 예를 들어서 위 공장 한 곳에서만 파위가 일어나도 여러분의 몸은 쓰러집니다. 집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뚱이는 집과 같아서 관리인, 심부름꾼, 집합소, 생명들이 살 수 있는 바로 집합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름 해서 '여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몸뚱이만 '여래의 집'이 아니라 전체 한데 합해서 돌아가는 걸 '여래의 집'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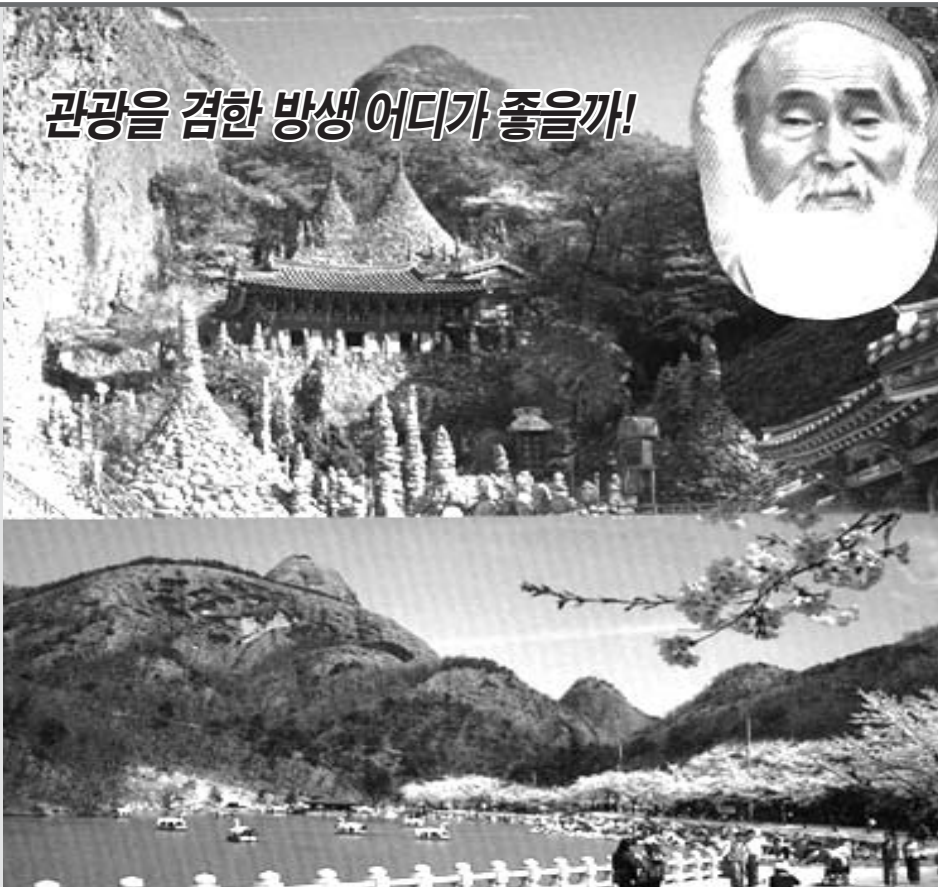
그런데 고걸 쪼그만 내 몸뚱이 하나로 축소해서 한번 보세요. 헤아릴 수도 없는 생명체들이 내 몸속에서 서로 더불어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더불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혼자 한 게 없고 혼자 먹는 게 없으니 아랑통을 갖지 말고 '나'라는 걸 세우지 마라. 혼자 한 것도 없고 혼자 먹는 것도 없으니 모두 내세를 게 하나도 없느니라. 그리고 번뇌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불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번뇌가 불을 지리기가 없다 이거예요. 병 불을 지리도 없고 번뇌 불을 지리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안 한 것도 없다. 여러분이 여기 오기는 분명코 왔는데 발자취를 갈머질 게 하나도 없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기는 살아도 힘이 없이 살았던 얘깁니다. 이 세상을 살되 힘이 없이 살고 있는 거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죽는다고 하더라도 죽는 게 아니라 삶의 의식들이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지고 그 원근분과 자기의 입력된 영혼은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있기 때문에 더하고 탈함이 없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원이 그렇다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왜 이런 게 있죠. 깨닫기가 힘이 심어져서 열매를 맺으면 그 콩 풀이나 있는 다 죽어 버리고 씨만 나오죠. 씨 하나만 있는 것을 조금 쉬었다가는 그 이듬해 봄에 그 씨를 심으면 다시 그 씨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죽으면 잠시 눈에 보이지 않았다가 그 차원의 종자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지옥 천당이 따로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경찰서로 해서 법정에 들어가서 돌아서, 즉 차원대로 콩씨는 콩씨대로 심어져 나가고... 아주 똑바로 얘기하자면 자기가 깨달았으면 개로 모습을 가지고 나올 거고 독사같이 살았으면 독사로 태어나기도 하고, 차원이 말입니다.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21면으로 계속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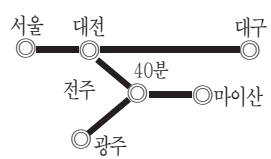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 마이산 탐사와 탐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답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탐사 063) 433-2900, 0303 432-0652, 0072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해전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봐야 얻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전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트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 하는가?
 - 4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 천축, 연속 인체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탐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 글쓴이: 해전법사
-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탐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상의 상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탐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탐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탐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벽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 글쓴이: 해전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요)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당문의 빛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흥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